

내가 말해 주리라

본문: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누가복음 20장 25절

참고: 요한계시록 13, 14, 19장

◆ 섭리는 말씀과 찬양, 문화 예술, 세 덩어리로 잡고 갑니다. 말씀, 찬양, 문화 예술의 근본 핵은 사랑이죠. 하나님을 절대 사랑하는 것을 중심해서 하는 것.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 못 받아요.

◆ 하나님께서 새 역사 펴실 때는 새 말씀, 새 노래를 주시요. 새 말씀, 새 노래는 사명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힘, 능력, 지혜, 말씀을 주어 사람들이 알게 해요.

◆ 오늘 말씀 주제는 “내가 말해 주리라.”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내가 말해 주리라.”

예수님께 성경을 배울 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도 들을 때 자세히 듣고 말귀를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해요.

사람은 70% 자기 인식대로 알아들어요. 어느 때는 80%, 90% 자기 인식으로 봐요. 그러니 확인해야 해요.

◆ 성경 말씀을 자기식으로 인식하고 푸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과 같이 얘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썼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좋은 것을 모른다. 행하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안 배우면 모른다.”

“이단은 진리라고 외쳤어도 아니니라. 통일교가 메시아라고 했어도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 것 같이, 14만 4천을 외치는 곳도 똑같다. 성경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좋은 성구만 매달고 다니면 되느냐. 그들은 끝에 가 볼 것도 없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봄의 눈 녹듯 사라진다.”

◆ 하나님께서 확실히 짚어 말씀해 주시겠다고 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밧모섬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의 영계 상황을 본 거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

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로서, 순교한 제자들, 어려움에 몸부림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희생한 사람들,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절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입니다. 구약 시대 모세 등 하나님을 믿고 잘하고 깨끗이 산 사람들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 있고, 신약 때 열심히 한 자들, 로마 박해 때 박해받은 자들이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 재림 때도 초림 때처럼 고난을 받고 반복되는 동시성 역사도 일어나지만, 요한계시록은 거의 예수님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몇 군데 재림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당세 잔치에 바빴지, 미래에 대한 것은 많이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은 미래에 가서 해야지. 내가 미래에도 나타나서 계시하고 말씀하니까. 당세 계시에 바빴지.”

성경에 메시아 온다는 것이 확실하게 예언되어 있지만,

80% 이상은 당세의 일을 예언하고 외쳤습니다.

◆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고, 이마에 쓰여있다, 이마에 인을 쳤다는 것은 진리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진리 말씀의 인을 받아야 사탄에게 절대 안 넘어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확실히 받으니 사탄에게 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절대 믿어야 사탄이 못 건들고, 흔들리지 않아요. 선생님은 15살 때부터 대둔산에서 기도하며 깨닫고 성경을 찾아보면, 깨달은 것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셨어요. 우리가 확실히 알고, 확실히 가르치고 전해주어야 해요.

◆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땅에서 구원받고,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영계 가 보면 구원받은 영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이 세상에서도 주시지만, 하늘나라 가면, 천사들이나, 땅에서 구원받고 간 자들이 찬양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 신천지는 14만 4천이 자기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예요.

예수님 때 희생하고 죽고, 몸부림치고, 그 당시에 예수님 모시고 섬기고, 못 보고도 믿고 순교한 자들의 영들을 요한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카타콤 무덤이 19km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했어요. 지금 사람들 예언한 것이 아니예요.

◆ 계시록 풀기 어렵다는데, 제대로 못 푸니 어렵지 제대로 풀면 쉬워요. 이사야 11장에 동방의 독수리를 보낸다는 것은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루셨고, 성약까지도 동시성 역사에 해당됩니다. 예수님도 동방, 아시아에서 나셨잖아요. 성경을 순리적으로 풀면 척척 잘 풀어져요. 억지로 풀면 안 맞아요.

◆ 신천지는 한 명도 14만 4천에 못 껴요. 예수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예수님 당세 때 있었던 자들과 구약 때 모세 등의 인물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14만 4천 무리에 다윗이 들어있어요?” “응. 들어있다.” 하셨어요. “신약 때의 베드로 여기 들어갔어요?” “들어갔지.” 구약의 깨끗한 사람들, 신약 사람들이 들어갔구나. “지금 사람도 들어갔을까요?” “지금 시대에 반복되는 동시성 역사에도 칠 때 따로 들어가지. 이 시대급은 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는 남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실한 오라기라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욕심이다.” 하셨어요.

◆ 이들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받아서 불러야 합니다. 신천지, 구원파, 전도관 등 새 노래를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통일교는 새 노래를 조금을 부르는 하는데, 원주인이 하나님께 직접 가서 받아 와야 합니다.

◆ 새 노래를 몇백 개씩 어마어마하게 받는 교파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것도 평신도가 받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받아 노래 불러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예요. 40년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전반기 때 가사는 받았지만, 곡을 못 만들어서 애간장 탔는데, 지금은 곡 받고, 가사도 받아서 1000곡 가까이 됐으니 충분하게 받은 것입니다.

◆ 하나님께 물어보니, “절대 사명자 아닌 자에게는 주지 않는다. 주면 그를 사명자로 인정하게.” 그래서 사명자에게만 주시고, 그들로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훌륭한 예술성을 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안 주고에 따라 사명자가 결정됩니다.

말씀도 사명자가 아니면 말씀의 근본을 안 줍니다.

아닌 곳은 말씀도 안 줘요. 그래서 말씀 갖고 아는 거예요.

◆ 다른 교파 지도자 중에 말씀 받으려고 산에 가서 성경 2000번 읽고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수도 생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리가 너무 영성해요. 신천지도 그렇게 산속에서 수도 생활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수도 생활을 산속에서 20년 동안 했고, 성경을 2000번 넘게 읽었죠. 어디 가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 성경은 앉아서 푸는 것이 아니예요.

기본적인 것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펴면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사명자와 같이 펴면서 성경을 풀기에, 아무나 푸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것을 배운 후에, 나와서 역사 펴면서 근본 인봉을 풀어주셔야.

기본적인 것 배우는 데 2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펴 주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 사람 숫자는 상관없어요. 진짜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신천지는 14만 4천 외치지만, 새 노래가 없으니 노래 얘기를 안 해요. 자기가 행한 대로 노래가 나와요.

우리가 행했으니, 우리만이 노래 부를 자격이 있는 거예요.

◆ 신약 때는 순교의 노래, 희생과 아픔의 노래들이 많아요.

기독교 전체가 십자가 지는 고통으로 2000년을 온 거예요.

지도자가 십자가 지면 따르는 자들도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 1000년 역사는 죽음의 십자가는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

십자가를 나만 진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여러분도 같이 졌지요. 고통의 십자가 지고 왔어도 순교해서 죽은 자는 없잖아요.

◆ 예수님 때는 예수님 육신이 죽듯이, 제자들도 육신이 많이 죽었어요. 로마 박해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기독교 찬송가 500곡, 가스펠까지 하면 700~800곡이 됩니다.

그 노래는 예수님 믿고 따른 자들이 부를 자격자예요.

◆ 구약 종 차원의 구원을 이루고, 신약 아들 차원의 구원을 이뤄요. 영계 가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얘기하고 의논하고, 지

상의 일들을 돕고 해요.

영계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왔어도 서로 몰라요. 땅에서 풀어져야 하늘에서 풀어지듯, 땅에서 사귀고 아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와서도 알지, 땅에서 모르면 하늘나라에서도 영들끼리 봐도 서로 몰라요. 인사해야 알죠.

◆ 솔로몬을 영계에서 보고 여러분이 “와!!!~~”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위신 다 깎여요. 그러면 나는 옆에 있다가 도망 올 거예요. 권위 있게 인사하고 말해야죠. “솔로몬, 반갑습니다. 잠언도 많이 읽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잠언 참 잘 썼어요. 3000 잠언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썼지, 솔로몬 자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잠언도 얘기 들어봤죠? 5만 잠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쓰셨는데, 우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그때도 지혜로 세상 흔들었지만, 요즘은 참 세상이 약아빠져서 보통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말해야지요.

◆ 영계 들어가서 계시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선생님 얘기 하죠. 예수님이 “아, 여러분은 정말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신대요. 예수님은 인격이 있어서, 이 사람 칭찬, 저 사람 칭찬해요. 자부심을 갖고 우리 신령한 노래를 많이 부르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의 주인은 아닙니다.

◆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다.”

‘여자’는 ‘우상’을 말해요. 이들은 **우상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은 자, 깨끗한 자, 타락론으로 볼 때는 이성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다.

구약 때 하나님 속 꿰이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었어요.

구약 때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종교에 대해 너무 모르는 자들이 가르쳐서 사람들을 버려 놓고 있어요. 여러분은 진리를 제대로 들으니 행복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아니까 사람으로서 신이 된다.**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잘해야 하니 많이 배워라.

◆ 요즘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선생님이 몸살이 났어요.

전국에 알려져 나 낮게 기도 좀 하라고 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 안 죽는다, 자기는 신이 되어서 아프지 않다, 영생한다.” 고 했으니까 아픈 것을 숨기죠.

나는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거짓말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해 줘서 선생님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를 몽땅 해 줘요. 항상 아픈 사람들 위해 기도해 주고, 매일 섭리사 위해, 지도자들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해요.

◆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우상 때문에 골치가 아팠어요. 왕들도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앗수르, 애굽도 다 우상의 나라여서.

그러니 하나님이 “내 주권만 잡아 봐라.”

하나님이 주권을 어떻게 잡느냐 하면, 땅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강림해서 그를 통해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대에 많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뤄져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싸움도 없고, 경제 전쟁, 사상 전쟁, 실제 원자폭탄 전쟁도 다 없어져요. 연약한 인간들이라 하나님이 모기 한 마리 보내서 독침 박으면 끝나요. 하나님께 까부는 자들은 흑암 세계, 지옥 가서 발버둥 칩니다.

◆ **우리는 이성으로도, 우상으로도 더럽히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런 것으로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격자들이 되더라. 14만 4천은 적은 숫자입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들만 뽑아서 그렇습니다.

◆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섭리사에서 거짓말하면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께 꼭 회개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쫓아낸다고 했어요.

회개 깨끗이 하고, 흠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재림의 역사도 새로운 노래를 줘서 부르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않고 깨끗이 하는 자들은 새 노래를 부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고 역사를 펴 온 자들, 성령님이 행한 것을 가지고 노래 부르게 하시니, 행한 자들인 우리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이 시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성약 시대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절대 말씀을 불신하지 말아야 해요. 말씀은 육신이 되어 주가 있으니, 주를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대 역사를 불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 요한계시록 19장, 그가 다시 와서 철장의 말씀으로 치신다는 것은, 재림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도 철장 말씀 가지고 행하셨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신약 2000년 동안 믿고 살다 죽은 수십억 사람들 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도 되고, 재림 역사를 펴는 주인공도 되고요. 신약 때도 이뤄지고, 성약 때도 예언된 것은 이뤄져요. 예수님의 역사를 동시성으로 재현하고 있는 역사가 핵심 역사이고, 성약 역사이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함께 역사 펴시는 세계입니다.

◆ 엄청나게 많이 배워야 해요.

법관들도 매일 재판해야 하니, 공부를 많이 해야 해요.

이와 같이 하늘 세계의 일들도 순간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 육신을 전환 시키고, 휴거시키고, 더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고 연속하려면 계속 배우고 뛰고 기도해야 해요.

◆ 올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해요. 기도해야 말씀을 전하면 확 확 감동되고, 성령님이 감동 주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자신이 직접 해야 속이 시원해요. 남이 해서는 속이 시원하게 못 해 줘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이러하다, 신약의 이런 사건 같이 이 시대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려니까, 본문 말씀을 모르면 안 돼요. 본인이 읽어봐야 해요.

◆ 금년도는 많이 가르칠 거예요. 많이 배워야 해요. 모르면 일 저지르고, 모르면 사고 나고. 신령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하려면 절대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절대 말씀이 필요해요.

선교하려면 노래, 찬양도 많이 해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선교하는 해”이지만, 그 앞은 “말씀의 해”예요.

1월 1일에 많은 말씀을 해 주리라 했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14장을 풀어주면서 시대를 내다보라고 했죠.

동시성으로 보는 새로운 역사를 펴는 곳도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원 근본은 신약 때 예수님에게 해당되어 일어난 사실이었고요.

◆ 좋은 성경 구절 다 끌어다가 자기가 이론다고 하는데, 성경 이루기가 쉬운가요. 때가 되어야 이뤄지는데.

역사를 맞추려면 정확하게 그때그때 맞춰 나가야 해요.

◆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는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어요.

1546년에 태어난 루터 후 400년 되던 해에 나는 3월 16일에 태어났죠. 또 사회적인 큰 자가 있어요. 1545년 4월 28일에 이순신 장군이 태어났어요. 그가 오고 400년 후에 온 거예요.

이와 같이 절대적인 하나님 역사는 확실해요.

◆ 하나님은 역사의 각을 맞춰서 시대의 사람들을 딱딱 보내시는 데,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나 말씀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의 말씀을 절대 행하는 자와 절대적인 역사에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하늘까지 닿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행하니 복 있는 자들입니다.

◆ 우리는 이 시대 신부들로서 천년 역사의 휴거 말씀을 받았습시다. 그 말씀을 표현한 새 노래도 주시고, 말씀을 실천해서 우리 영혼들이 황금 천국을 향하는 신부들이 되었습니다. 육신도 땅에서 신부 입장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를 확신하며 증거하고 가르쳐야겠습니다.

◆ 깨끗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같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오직 사랑하고 섬기며 그 뜻을 펴며 삶이 충만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고 가는 우리의 책임이 크니, 시대에 모두 외치는 자들이 되어 부지런히 외쳐줘야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 돌리는 15일 주간입니다.

금년도 말씀을 중심해서 초반부터 전도 위해 뛰고 달려야겠죠.

말씀 읽음							
-------	--	--	--	--	--	--	--